

# 최저임금 인상 편승 물가 줄줄이 인상

원재료값·국제유가 상승세까지 겹쳐 식품물가 인상 가속  
당면 27.5%·어묵 9.9%...가공식품 한달간 15개 품목 올라

‘물가인상’ 바람이 심상치 않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이후 원재료 값과 국제유가 상승세까지 겹치면서 식품과 외식업계의 물가인상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까지 결정되면서 식품·외식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리고 있어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더욱 가벼워지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다소비 가공식품 30개의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한달 전인 지난 5월보다 가격이 상승한 품목이 무려 15개(50%)에 달했다. 가격이 오른 대표적인 식품은 된장(2.6%)과 어묵(2.6%), 햄(1.9%), 냉동만두

(1.4%), 케찹(1.4%) 등으로 나타났다. 어묵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 100g당 567원에서 1년 사이 623원으로 9.9%, 즉 석박(100g)은 559원에서 607원으로 8.6%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설탕(100g) 역시 221원에서 236원으로 6.8% 증가했고, 우유(100ml)도 259원에서 275원으로 6.2% 상승했다.

‘서민 술’이라 불리는 소주(100ml)도 지난해 343원에서 올해 360원으로 5.0% 상승했고, 맥주(100ml)는 411원에서 421원으로 2.4% 올랐다.

올해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와 공업제품, 교통물가 상승까지 겹친 상황에서 국내 대표 식품·제과기업들까지 가격인상을 추진해 서민들의 가계경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관련업체에 따르면 오뚜기는 지난 달 초 라면을 뺀 16개 품목에 대해 가격을 최대 27.5%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오뚜기 자른당면이 5100원에서 6500원으로 27.5% 올랐으며 구수한 누룽지(소컵)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15.4% 인상됐다. 맛있는 북어국은 2800원으로 12.0%, 맛있는 미역국은 2100원으로 10.5% 각각 올랐다.

제과업체인 롯데제과, 해태제과, 크라운제과도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롯데제과는 지난달 빼빼로 4종 가격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0% 올렸다. 중량을 15% 가량 늘려 중량당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인상 폭은 이보다는 작다. 크라운제과는 잠크래커 가격을 1200원으로 33.3% 인상했으며, 해태제과는 오예스를 2000원으로 25.0%, 맛동산을 2000원으로 33.3% 각각 올렸다. 팔도는 전통 음료 제품인 비락식혜와 비락수정과 캔(238ml) 제품 가격을 이달 5일부터 100원(11.1%) 올려 1000원이 됐다.

식품·제과기업을 비롯한 상당수 기업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으로 혼란스러운 사회분위기 속에서 가격인상을 추진하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인상과 판매관리비, 인건비 인상 등을 이유로 해당 업체에서 가격인상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82.29 (-7.82)	금리(국고채 3년) 2.09 (0.00)
↓ 코스닥 796.49 (-13.95)	↓ 환율(USD) 1133.20 (+0.90)



김영문 관세청장이 19일 군산세관 직원들과 호남세관박물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청장은 군산GM 공장을 방문하고 기업경제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세관 제공>

## 김영문 관세청장 전북 기업 애로 청취

군산·전주세관 방문

김영문 관세청장은 19일 군산 및 전주세관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관직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청장은 지난 5월 폐쇄된 ‘군산GM’을 방문해서 군산GM 및 부두운영사 관계자와 함께 공장내 야적장 및 자동차 전용부두 활용방안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상생 방안을 협의하고, 자유무역지역 내 ‘삼양이노랩’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청장은 “군산GM 유희시설을 수입

자동차 환적장지장 등으로 지속적 활용이 가능토록 모든 행정지원을 하겠다”며 “또한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으며 관세청 혁신활동을 통해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청장은 군산세관 직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중심 혁신활동’을 강조했으며, 이후에는 전주세관에서도 친환경복합산업단지 조성 예정인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현장점검하고 직원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광주국세청 세금교실 요긴하네”

창업·소상공인 홈택스 이용방법 등 교육 호평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환)이 창업·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맞춤형 ‘세금교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환)은 지난 17일 세금교실 운영 1주년을 맞아 올해 창업한 개인 및 법인 신규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미리교육센터(체행거리 3층)에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소득세, 법인세 등과 관련된 기초세금정보 제공과 납세자권익보호제도·영세납세자지원제도 안내 및 홈택스 서비스 이용방법도 실습을 통해 현장감 있게 운영했다.

이날 세금교실은 창업·소상공인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세금정보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무컨설팅 제공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주청은 1주년을 맞아 소통 전담창구인 ‘소통데스크’를 설치하고 나눔세무(회계)사와 함께 운영해 호응을 받았다. 또한 사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외된 소상공인과 영세납세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금 공금증 해소, 성실신고 지원, 애로·건의사항 경청 등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소통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14개 세무서에 총 166명(세무사 131명, 공인회계사 35명)의 나눔 세무·회계사를 위촉해 사업자의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상담해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 홀수달 셋째 주 화요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농협광주공판장, 전국서 장사 제일 잘했다 상반기 종합업적평가 1위

농협광주공판장(사장 김훈)은 ‘2018년 상반기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공판장은 올해 1500억원의 사업실적을 목표로 분산처 개발을 통한 사업물량 확대와 산지조직·중도매인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했다. 또 주산지 출하품목에 대한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공판장출하가격보장제’를 확대, 수급불안 품목의 안정적인 물량확대 추진에 매진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김훈 사장은 “광주공판장을 믿고 출하해주는 농업인들이 있어 가능했던 결과”라며 “제 값에 잘 팔아주는 공판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 주력업종 자동차·냉장고·타이어 수출 감소 지속

전남은 10대 주력 품목 대부분 증가...전년비 19.7% ↑

광주지역 수출이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력 업종인 자동차·타이어·냉장고 수출 물량이 모두 줄어들면서 자칫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가 19일 발표한 ‘2018 상반기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지역 수출은 71억7500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72억7600만달러)에 견줘 1.4% 감소했다.

지난해 광주지역 수출도 전년도에 비해 0.8% 감소한 데 이어 올 해 다시 1.4% 줄어든데다, 감소폭도 커지면서 성장 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광주지역 수출 감소는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 타이어, 냉장고 등 주력 업종의 부진이 한몫을 했다. 자동차는 북미 수출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가 줄어든 26억8400만달러에 그쳤고 자동차 부품 수출도 1억500만달러에 머무르면서 전년 동기 대비 8.0%나 감소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냉장고는 미국(-9.9%)을 비롯한 이란(-47.4%), 호주(-9.2%), 프랑스(-27.7%), 중국(-58.0%) 등 주요 수출국의 물량이 감소한 4억12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7%나 떨어졌다. 타이어 등 고무제품 수출도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 4.1% 감소했다.

반면, 전남지역 수출은 181억54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7%가 증가했다. 10대 주력 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고 석유제품과 합성수지 수출액은 50.6%, 17.3% 늘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니로 전기차 모델 출시

니로 전기차(EV) 모델이 출시, 판매에 들어갔다.

니로 EV는 고용량 배터리와 고효율 구동모터를 탑재해 1회 완전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 385km(64kWh 배터리 기준)를 인정받았다.

안전사양 면에서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와 차로 유지 보조(LF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운전자 주의 경고(DAW) 등이 모든 모델에 기본 장착됐고 세부 모델별로 후측방 충돌경고(BCW), 하이빔 보조(HBA), 고속도로 주행보조(HDA) 등도 선택, 적용토록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몽칩시다!

부동산 불경기로 인해서 아침에 눈을뜨면 중개업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는 중개사님! 실장님!들이 많습니다.

(주)가은 부동산 중개법인에서는 개발지, 시행처, npl, 급매물 등 계약성사가 빠른 현장정보를 제공하며, 20여명의 직원들끼리 손님과 매물을 서로 공유하면서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함께 파이팅 하실분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연락처 010-2800-3589

